

<http://dx.doi.org/10.17703/JCCT.2020.6.1.381>

JCCT 2020-2-46

통사화용의 접합면에서 본 영어 헤지표현의 유형과 기능

Types and Functions of English Hedges at a syntax-pragmatics Interface

홍성심

Hong, Sungshim

요약 본 논문의 목적은 주로 사회언어학과 화용론 분야에서 연구되어 온 영어 ‘헤지(Hedges)’ 혹은 헤지표현을 형태통사적 관점과 화용적 관점을 연관지어 논의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헤지표현이 없는 자연언어는 없다’는 추론이 가능한데, 그것은 어떤 자연언어에나 공손성, 혹은 화자가 청자보다 낮은 자세로 말하고자 하는 문법기제가 있음이 널리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헤지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연구는 주로 화용적 관점에서 헤지의 유형 분류와 화용적 기능, 그리고 출현빈도 비교 등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즉, 헤지표현을 형태통사적 개념인 자질로 나타내려는 시도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언어현상으로서의 헤지는 유무에 따라, 화용부와 통사부의 접합면에서 [+hedged]와 [-hedged]로 이분지화 가능하며, 이 화용자질은 형태통사부와 상호작용 하므로 협의의 통사부에서 분리될 수 없다. 본 논문에서, 헤지는 공손성이 표현되는 화용자질로서, 그 자질이 표시되는 접합면 영역이 구조적으로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CP+층위가 화용자질인 헤지자질이 인코딩되는 영역임을 제안하였다. 최근에는 범언어적 관점에서 혹은 영어교육의 학술적 EFL/ESL 글쓰기, 또는 담화분석 등에 헤지 표현의 식별 여부나 용례를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 본 논문은 그동안 간과되어온 동등접속문, 병렬중속문, 부분사 구문 등을 헤지에 포함시키고, 보다 구조적이고 이분지적(±)인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제2언어습득의 이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혹은 인공지능 자연언어 알고리즘에 화용 자질을 도입할 수 있는 구조적이고 이론적인 기반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어 : 헤지표현, 화용적 보편소, ±공손성 자질, 통사-화용부 접합면, 젠더랙트, 이분지

Abstract This paper discusses English Hedges or Hedging Expressions on the basis of their morphosyntactic-pragmatic properties within the perspective of sociolinguistics. The term, 'Hedges' for the past decades since Lakoff(1973), has received little attention from the English grammar circles such as morphosyntax and the generative grammar theories. This paper presents a more comprehensive approach to the identification, distributions, functions, and the morphosyntactic properties of English Hedges. The earlier research on English Hedges in the 70's show that hedges are metalinguistic or metadiscourse expressions which constitute a means for executing Politeness strategy in pragmatics. Nonetheless, research from the interface of syntactic-pragmatics has been scarce. This article suggests a more complex body of English hedges that have not been extensively discussed in the literature. Additionally, their configurational domain is to be proposed as part of the PolP with [+hedged] above CP⁺ (or CP beyond). The ramifications of the current study are suggested in terms of comparative linguistics, EFL/ESL studies of English for global communication, and pragmatics-sensitive machine translation studies in the foreseeable future.

Key words : hedges, pragmatic universal, ±politeness, syntax-pragmatics interface, genderlect, binarity

*정회원,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교수 (제1저자, 교신저자)
접수일: 2019년 12월 11일, 수정완료일: 2019년 12월 26일
게재확정일: 2020년 01월 05일

Received: December 11, 2019 / Revised: December 26, 2019
Accepted: January 05, 2020
*Corresponding Author: vshong@cnu.ac.kr
Dep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Chungnam National Univ, Korea

1. 서론

헤지란 무엇인가? '헤지'(Hedges) 혹은 '헤지표현'은 "... 사물이나 그 기술(description)을 다소 애매하게, 두리뭉실하게, 덜 확정적으로 만드는 데 사용하는 어휘/표현들"이라고 Lakoff는[1] 정의하였다. 헤지에 대한 해당 한국어 용어는 제안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헤지를 본격적으로 연구한 한국학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헤지를 연구한 학자들은 최근 영어 교육적 관점에서 EFL 글쓰기에 나타난 영어헤지(Kim[2], Min, Pack, Kang[3], 혹은 사회언어학 관점에서 한국어 헤지를 논의한 Yoon[4]이 있다.

헤지는 Lakoff 이래, Hyland[5], Mizokami[6], Crompton[7], Frazer[8], Uysal[9], Demir[10] 등 많은 학자들이 주로 화용론, 사회언어학의 일부로 논의해 왔다. 공통적으로, 헤지는 화자의 의견, 주장, 논증 등을 부드럽게, 겸손하게, 어조를 낮추어 표현하고자 사용하는 자연 언어의 문법적 기제이다. 이는 Leech[11], Shibatani[12], Kayshap[13], Hong[14]이 주장한 바대로, 모든 자연언어는 공손성을 소통의 책략으로 가지고 있고, 다만 이를 문법적으로 실현하는 방식에는 언어별 차이가 존재한다.

공손성에는 긍정공손성과 부정공손성이 있는데, 화자가 의견을 표현할 때, 긍정공손성 책략으로 칭찬과 함께 비평을 제시하기(juxtaposing), 공동의 배경확립하기(common ground), 유머 사용하기, 경어법(honorifics), 부가 의문문 사용하기(tag questions), 'please'같은 담화표지어(discourse marker) 사용하기, 동일집단만이 알 수 있는 전문용어(jargon)나 은어(slang) 사용하기 등이 있다.

한편, 부정공손성 책략으로 대표적인 것이 '헤지하기'(Hedging) 혹은 '헤지 표현'사용하기, 반대의견 내기 등이 있다.

'헤지'에 대해 언급한 대표적인 연구로 Lakoff는, 헤지가 '남성'보다 '여성'의 언어에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언어적 기제 중의 하나라고 지적하였다. 여성의 언어가 가지는 몇 가지 특징 중, 부가 의문문의 빈번함, 헤지의 과도한 사용, 공손함의 표현이나 과도한 형용사의 사용, 강조어(intensifier)의 반복적 사용 등이 해당된다.

한편, '헤지'의 정의는 이미 언급한 Lakoff 이외에도

시대에 따라, 학자들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헤지란, "...사물/상황/주장 등을 애매(fuzzy)하게 또는 불확실하게 보이려고 사용되는 단어나 언어표현들"이다. 사실 Lakoff 이전 Zadeh[15]가 "fuzziness"의 개념을 최초로 수학적 개념인 집합이론과 언어의 "fuzziness"를 접목하여 퍼지 언어학의 시발점이 되기도 하였다.

한편, Hyland는 "헤지란, 언어사용에 있어 작은 가능성이더라도 여지를 남겨두거나, 확실성을 피하고자 하는 언어적 표현 방식"이며, 극명한 확실성을 없애려는 의도로 사용되는 메타언어 방식이라고 하였다.

또, Crompton은 "헤지란 저자의 주장/진술/명제 등의 절대적 진위에 대한 책무(committing)를 피하려는 화용적 책략"이라고 하였다:

"(Hedging is...) a linguistic strategy allowing the author to avoid committing to the absolute truth of a proposition/statement or claim that the author is making."

따라서, 헤지는 화자/저자가 특정한 의견, 주장, 견해 등을 표명함에 있어, 상대방의 공격, 반박, 반론을 피하고자 애매하게 사용하는 어투의 언어방식이다. 예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1) a. The issues highlighted in this study are applicable to all participating institutions.

b. The issues highlighted in this study may be applicable to many participating institutions.

(2) a. The government support will assure the spread of new knowledge and the skills necessary to use the internet to thousands of people in rural areas.

b. The government support may help the spread of new knowledge and the skills necessary to use the internet to thousands of people in rural areas.

위에서 (1a)는 수식이 따로 없이 정보의 진위(truth-false) 그대로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예문(categorical expression)이고, (1b)는 헤지표현을 사용한 예문이다. 헤지표현이 된 문장은 'are' 대신 'may'라는 서법조동사를 사용하고 있고, 'all (모든)'이란 양화사 대신 'many' 라는 수량형용사를 사용한다. 또한 (2a)는

‘...will assure...’라는 강한 어조의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2b)는 헤지를 사용하여, ‘...may help...’를 사용하였다.

(1a)-(2a)에 비해 (1b)-(2b)는 훨씬 약해진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해서, 공격이나 항변, 반박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

따라서, 헤지는 어떤 언어 내적인 문법현상이라기보다는, 언어사용자가 논리적 공격이나 반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보호기제에 속한다.

문제는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여, 어휘 (혹은 단어)보다 더 작은 과거 시제소 같은 구속형태소 수준의 헤지가 있는가 하면 문장 밖 혹은 담화적 헤지까지 그 유형을 일반화 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다음을 살펴보자.

(3) 본동사 헤지 [\pm hedged]

a. The study proves the link between smoking and lung disease.

b. The study indicates/suggests a (possible) link between smoking and lung disease

(3a)의 (3b)차이는, 동사 ‘prove’와 ‘indicate’, ‘suggest’의 차이이다. ‘prove’에 비해서, ‘indicate’나 ‘suggest’는 주장의 정도가 약화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부사류를 사용함으로써 헤지를 표현한 경우의 예는 아래와 같다

(4) 부사류 헤지 [\pm hedged]:

a. The number of unemployed people will continue to rise as the poor economic situation persists.

b. The number of unemployed people will probably continue to rise as the poor economic situation persists

(4b)에는 ‘probably’가 있어서 이 발화를 한 화자는 공격 받을 확률이 훨씬 적어진다. 즉 독자나 청자의 공격이나 반박으로부터 자신의 주장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진다. 사회언어학에서 여성의 언어에서 헤지가 많이 발견된다는 지적을 했던 많은 사회언어학자들은 헤지가 역시 여성의 언어적 (젠더랙트)특성이며 여성은 특유의 몸 낮추기, 말 낮추기, 거리유지하기(Distancing), 혹은 자신의 주장 희석(Attenuation)하기 전략을 많이 쓴다는 것이다. 물론 Mizokami[16]에 따르면, 최근의 연구들은 이런 트렌드를 옹호하지 않는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2장에서는 영어 헤지표현의 식별과 유형에 관한 선행연구를 제시하고, 제3장에서는 헤지의 유형 중 어휘범주 이상을 넘어서는 병렬접속구문 구조, 부가의문문구조, 내포문 구조, 부분사 구문 등 구범주, 절/문장 범주 이상의 헤지를 논 의한다. 또한, 3장에서는 화용자질인 헤지자질이 출현한 문장 구조를 통사-화용부의 접합면에서 개략적으로 제안하고, 제 4장은 결론과 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II. 선행연구: 헤지 식별과 유형

‘헤지’는 문법단위나 문법기능, 특정 구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모든 형태의 통사범주, 문법요소 들을 포함하며, 화용론적 관점에서 만들어진 용어이다. 따라서, 소위 품사나 통사범주라고 말하는 문법 단위로 기술할 수 없고, 따라서, 그 구조도 연구되지 않는다. 주어-술어-목적어-수식어 등의 문법기능으로부터도 자유롭다.

헤지의 이론적 분류와 식별은 EFL/ESL 연구 혹은 젠더언어학의 대상인 젠더랙트 연구에 지침이 될 수 있다. 우선 헤지를 분류한 대표적인 선행연구중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게 간단한 수정/편집을 거쳐 다음에 제시한다.

표 1. Namsaraev[17]의 분류
 Table 1: Namsaraev's classification

학자	헤지구분	예시
Namsaraev	indetermination 비단정적 말하기	길게/짧게 말하기
	depersonalisation 유체이탈화법	-we, -the authors, -the researchers
	subjectivisation 의견 주관화하기	-I think -In my opinion
	limitation 제한하기	애매모호성 제거하기

위 <표 1>에 의하면, 헤지는 4가지로 나뉘는데,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기 위해, 화자는 길게 늘어 말하거나, 한마디로 줄여 말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소위 ‘유체이탈’화법으로 마치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여러 사람이 하는 것처럼 (포함적 1인칭, 즉 I 대신 we), ‘...저자

들은'혹은'...'학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표1>의 분류는 헤지를 담화기능적 관점에서 분류한 것이다. 화자-청자 사이의 입장이나 의견제시 방식, 태도 등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Zuck & Zuck[18]에 의하면 헤지는 형태-어휘 문법적으로 분류된다.

표 2. Zuck & Zuck의 분류
Table 2. Zuck & Zuck's classification

학자	헤지구분	예시
Zuck & Zuck	auxiliaries 서법조동사	will, can may
	semi-auxiliaries 준조동사	seem, appear
	full verb 분동사	suggest
	passive voice 수동태	
	adverb & adverbial 부사류	a l m o s t , probably
	Adjective 형용사	
	indefinite (pro)noun 부정대명사	anyone, something

위 <표 2>의 분류는 형태-통사범주 기반 분류라고 할 수 있는데, Zuck & Zuck의 분류는 절 단위의 헤지가 포함되지 않고, 어휘(X⁰)수준의 헤지만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Nozawa의 분류는 이런 단점이 보완된 유형표를 제시하고 있다.

표 3. Nozawa[19]의 분류
Table 3. Nozawa's classification

헤지 유형	예시	기능
서법조동사	may, can, etc	조건, 가능성
명제적 헤지	I think, I suppose, I don't suppose, I was wondering if, I am not sure but,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는 기능
인식동사, 가능성을 나타내는 부사, 유사한 의미에서 파생된 명사와 형용사	suggest, appear, perhaps, probably, possibly, likely s u g g e s t i o n , probability	극명한 책무를 피하도록 하는 기능
입장 동사, 제한적 부사	maybe, actually, kind of sort of really, basically, personally necessarily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는 기능
부가의문문	~isn't it?, ~aren't they?	불확실성 암시하는 기능

Nozawa의 헤지유형 분류는 어휘수준의 분류, 절 수

준의 분류, 그리고 절 경계를 넘어선 부가 의문문같은 헤지를 포함한다. 부가의문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정공손성을 나타내는 헤지이다.

표 4. Hyland의 헤지 분류
Table 4. Hyland's classification

헤지 유형	예시
서법조동사, 준서법조동사	may, might, can, could, etc
동사	seem, believe, appear, estimate, argue, etc
인식형용사	possible, approximate, uncertain.
인식부사	slightly, presumably, merely, partly
양화사, 한정사	a few, some, many
명사	assumption, estimate, suggestion, claim

이상과 같이 헤지를 분류하거나 식별하는 기준은 대부분 어휘적 수준의 분류였다. 어휘 수준의 헤지, 구법 주 수준의 헤지, 단일 시제절/문장 수준의 헤지, 더 나아가 복문, 복합문, 병렬접속구문('It is not X, but Y, 혹은'It is not only X but also Y) 수준의 헤지도 가능하다. 이처럼 헤지의 형태는 특정통사범주를 넘어선다. 따라서 문법적 관점에서 헤지는 연구의 주제가 되기 힘들었다.

한편 Uysal은 상세한 유형의 헤지들을 크게 3가지로 나누었는데, 첫째는 수사학적 도구로서 헤지가 있고, 여기에는 수사의문문, 부가 의문문, 모호한 detensifier와 강조어 intensifier 등을 포함하는 방식이다. 둘째는 어휘적이고 지시적 표현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서법조동사를 사용한다든지, 거리를 두기 위한 복문의 형태로'I believe that..., I am concerned that. ...I like to think' 등과 같은 구문의 헤지이다. 또, 담화표지요소인, anyway, anyhow 등도 이 그룹에 속하며, 지시사 this, these, 불한정 대명사, 양화사, 각종 부사 등이 이에 속한다. 셋째 방식의 헤지는 통사적 표지와 구조를 가진 헤지로 수동구문과 if-조건문을 들었다.

Uysal의 분류방식은 <표1>,<표2>,<표3> 보다는 비교적 형태통사적 분류에 충실하였으나, 포함되지 않은 몇 가지 헤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이 제안하는 통사구조적 헤지는 아래와 같다. 통사구조적 헤지란, 모문/단문 단위를 벗어나는 구문을 말하는데, (i)부가의문문(Tag Q), (ii) 병렬접속구문

(Correlative Conjunction),(iii) 거리두기(Distancing) 용
내포복문(Embedding),(iv)부분사구(Partitive
Construction), 그리고 선행연구에서도 논의되는 경우가
있으나, 그다지 중요한 해지로 언급되지 않는 (v) 삽입
구 해지 등이다. Uysal이 포함시킨 수사어문문은 통사
적으로는 단일문의 의문문형태를 가지고 있어, 본 논문
에서는 이를 제외한다. 다음 절에서는 이런 해지를 포
함하는 경험적 자료를 제시한다.

III. 영어 해지표현의 경험적 자료

이 절에서는 2장에서 선행연구 중 논의가 부족하거
나 논의되지 않은 구문을 중심으로 영어 해지표현의 식
별에 포함되어야 할 해지들을 추가로 제시한다.

3.1. 동등접속구 해지

(a) The Congressman, John Smith, is disagreeing
with the presidential bill

(b) John Smith and Nancy White, both US
Senators, are disagreeing with the presidential bill

위의 (a)는 [-hedged], 즉 categorical 의미를 가진 예
문이고, (b)-(c)는 문장의 간접성/확실성으로부터의 회
피, 그리고 화자의 의견의 수위나 어조를 낮추는, 혹은
주저함(Hesitancy)을 보이는 [+hedged] 예문이다. 단수
주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복수의 주어를 사용하는 것이
언어적 거리감을 넓혀주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따
라서, 'I' 대신 'We'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XY
대신 XY and WZ를 사용하면 청자로부터 심리적 거리
감이 생긴다.

3.2. 병렬접속구 (Correlatives) 해지

(a) John will not see your side of the argument

(b) John will not only see your side of the
argument but also support it.

(c) The victims will want to be left alone.

(d) The victims as well as other refugees will
want to be left alone.

병렬접속사는 쌍으로 이루어진 접속사로 not ... but,
not only.... but also, (n)either ...(n)or... 등이 있다.

3.3. 부가의문 (Tag questions) 해지

(a) He is coming soon.

(b) He is coming soon, isn't he?

3.4. 무행위자 수동(Agentless passives) 해지

(a) The global warming was on the rapid increase.

(b) It was reported that the global warming was
on the rapid increase.

3.5. 내포 (Embedding) 해지

(a) Mary won't pass the job interview

(b) There isn't much hope that Mary'll pass the
job interview.

(c) It is highly unlikely that Mary'll pass the job
interview.

3.6. 부분사 (Partitives) 해지

(a) One of the DAs was disagreeing with the
defendant.

(b) The two of the DAs were somewhat
disagreeing with the judges.

(c) He was annoyed at one of the essays.

(d) He was sort of annoyed at her.

3.7. 삽입구 (Parentheticals) 해지

(a) If necessary, the budget will be confiscated in
total.

(b) According to the UNESCO, there are
approximately 5,000 endangered languages in the
world.

삽입구는 여러 가지의 통사범주에 속하기는 하나, 문
법기능상으로는 부가어의 기능을 하는 요소들이다. 물
론 (a)의 예를 보면, 절의 구조를 가진 요소가 생략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통사구조 자체는 절의 구조
(TP/CP)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위의 예들은 절 혹은 구범주 이상의 해지를 논
의하였으나, 영어에서 논의되지 않은 아주 작은 단위의
해지를 다음에 소개한다.

3.8. 상(Aspect)으로 표현되는 해지

a. It is discussed in the paper that

b. It is being discussed in the paper

c. We presented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s
on...

d. We have presented the results of the

(a)-(b)는 진행상이 포함되어 화자-청자간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c)-(d)는 단순과거와 현재 완료상의 변화를 보면, 헤지로서의 역할을 알 수 있다

3.9. 시제 (Tense)로 표현되는 헤지

- a. If the committee can reconsider the proposal,
b. If the committee could reconsider the proposal....

위의 두 예문은 서법조동사인 ‘can’이 ‘could’와 결합하여 ‘가상 (irrealis)’의 헤지효과를 보이는데, 두 문장의 차이는 과거시제가 실현된 것의 차이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영어의 경우 시제로 표현되는 헤지가 있다는 주장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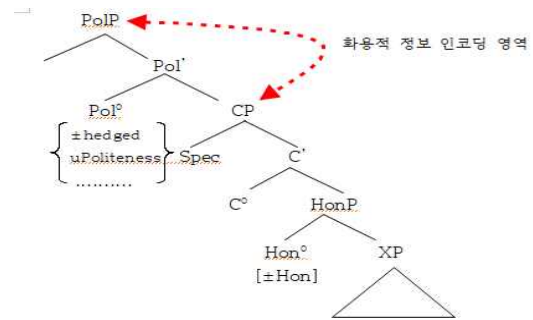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사실상 기존의 연구들이 논의하지 않았던 새로운 헤지들을 포함하여, 구속형태소의 접사적 성격이건, 어휘범주 수준이건, 구범주/절범주 그리고 그 이상의 범주도 화자가 청자로부터 거리감(distancing) 갖기, 자신의 생각 희석(attenuation)하기, 자신의 어조 낮추기(tone down), 잠재적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self-protectiveness)하기, 주저함(hesitancy)과 애매함(evasiveness) 추구하기, 그리고 친근함/호감의 추구(seeking amicability) 등을 위해 헤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기존의 연구가 포함하지 않거나 거의 논의하지 않았던 영어 표현을 헤지표현의 자질유무로 포함해야 함을 논의했다.

결국, 화용적 목적의 헤지는 자연언어처리를 위해 기계번역 혹은 AI번역 알고리즘을 실현하기 가장 난해한 요소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화자의 전략적, 무의식적으로 화자-청자간의 관계를 위해 포함되는 메타언어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네이버의 Papago와 구글의 Google Translate 등의 (pre-)AI 번역기는 아직 화용자질을 식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도입되지 않았고, 문자 자체(categorical) 해석에 집중하고 있다.

IV. 접합면에서의 헤지표현 구조도

Hong은 Chomsky[20]의 분석과 주장을 수용하여, CP 층위가 담화정보를 인코딩하는 층위라는 주장을 한

바 있다. TP-CP 사이에는, FocusP, TopP, FinP 등의 다양한 구조가 가능하지만[21], 일단 본 연구의 초점은 화용적 영역에 속하는 TP...CP... PolP의 관계에 집중하여, 개략적인 구조를 그래픽으로 제시한다.



언어마다 다르겠지만, 문법기제인 공경어법은 HonP에서 자질이 점검-실현되고, 화용자질인 헤지자질은 CP의 (혹은 ForceP의) 상층부에 자리하여 PolP에서 화용적 정보가 점검-인허된다. 이 화용적 정보가 출현하는 영역을 우리는 CP+ (CP 플러스 도메인)이라고 명명하였다. Hong에 의하면 경어법이 풍부한 한국어 달리, 영어에서는 경어법이 절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C에만 경어구 HonP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통사적 경어법이 화용부에 이르면, CP+에서 공손성 책략이 점검/인허되는 PolP가 있다고 제안한 것이다. 위의 수행도는 일단 헤지의 유무를 표시하는 통사-화용적 영역이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TP 안에 존재하는 공경구 HonP는 생략 되었으며, TP 내부의 상세 구조는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생략되었다.

V.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 우리는 자연언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담화기제 중의 하나인 헤지를 논의하였다. 특히 영어헤지에 관한 이해와 정확한 분석은 영어 모국어화자(NSE)이건 아니건(NNSE)커뮤니케이션의 목적달성에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헤지를 화용자질로 제안하고, 이미 제안된 CP 위쪽의 PolP까지 헤지자질은 살아서 완전해석성 원리를 만족시킨다는 Chomsky의 원리를 옹

호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과 제안은 사회언어학의 다양한 하위분야에서 영어교육적 시사점과 기여, 제2언어습득분야, 젠더랙트의 분야, 글쓰기와 담화분석의 분야등에서 여러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게 해준다[22].

또한, 범언어적 관점에서, 영어의 헤지와 한국어의 헤지는 구조적으로 동일한 것들도 있고, 상이한 것들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마치 두 언어 사이에는 보편성과 개별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과 같다. 예를 들면, 한국어의 헤지는 Yoon이 다루었던 바와 같이 주로 문장 종결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많지만, 한국어의 연쇄동사구문은 헤지표현의 일부라고 할 수 있지만, 영어에는 연쇄동사구문이(serial verb construction) 존재하지 않는다. Hong[23]이 논의한 V1+V2+V3 (...해+보아+주다)나 조금 더 간단한 경우는 V1+V2 (...해+보다)의 경우가 그에 해당되는데, 범언어적 관점의 헤지 비교연구는 본 연구의 범위 밖으로, 향후 연구 주제로 남겨둔다.

References

- [1]Lakoff, George. Hedges: A Study in meaning criteria and the logic of fuzzy concepts. *Journal of Philosophical Logic* 2: 458-508. 1973
- [2]Kim, C K. A corpus-based comparison of metadiscourse in argumentative texts of a British newspaper and Korean university students'English argumentative texts. [3]Soohyun Min, Jin Kung Pack, Yusun Kang. Exploring the Use of Hedges and Stance Devices in Relation to Korean EFL Learners' Argumentative Writing Qualities. *English Teaching*. Vol. 74. 1. Spring 2019. DOI:10.15858/engtea.74.1.201903.03-22. *Discourse and Cognition*, 16.3:65-88. 2009.
- [4]Yoon, Yeonhee. *Korean Hedges in Spoken Discourse: Sociopragmatic and Pragmalinguistic Perspective*. Korea University Press. 2016.
- [5]Hyland, K. The Author in the text: Hedging scientific writing. *Hong Kong Papers in linguistics and language teaching* 18: 33-42. Reidel Publishing Company, Dordrecht-Holland. 1995.
- [6]Mizokami, Yuki. *Women's Language as the Ideological Fabrication: A critical assessment of sex difference research in English and Japanese sociolinguistics*. MA dissertation, University of London. 1995.
- [7]Crompton, P. Hedging in Academic Writing: Some theoretical problems.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16.4. 1997
- [8]Bruce, Frazer. *Pragmatic Competence: The Case of Hedging*. *New Approaches to Hedging*, edited by Gunther Kaltenböck, Wiltrud Mihatsch and Stefan Schneider. Emerald Group Publishing Limited. 2010.
- [9]Hacer H. Uysal. *A Cross-cultural Study of Indirectness and Hedging in the Conference Proposals of English NS and NNS scholars. Occupying niches: Interculturality, Cross-culturality and Aculturality in Academic Research, Second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DOI:10.1007/978-3-319-02526-1_12,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Switzerland. 2014.
- [10]Demir, Cuneyt. Hedging and academic writing: an analysis of lexical hedges. *Journal of Language and Linguistic Studies*. 14. 4: 74-92. 2018.
- [11]Geoffrey Leech. Politeness: Is there an East-West Divide? *Journal of Foreign Languages* 160:1-30. 2005.
- [12]Masayoshi Shibatani. Honorifics. In *Encyclopaedia of Language and Linguistics*. 381-390. 2006.
- [13]Abhishek Kumar Kashyap. On Honorifics.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systemic functional Congress 35: Voices around the world*. pp. 201-206. 2008.
- [14]Sungshim Hong. Feature-based Honorifics and Politeness in English and Korean at a Syntax-Pragmatics Interface.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Vol. 23.2.199-219. 2013.
- [15]Zadeh, L.A. Fuzzy sets, *Information and Control* 8.3. 338-353.1965.
- [16]Mizokami, Yuki. Does 'Women's Language' Really Exist? : A Critical Assessment of Sex Difference Research in Sociolinguistics. 2001. <http://plum.itc.nagoya-u.ac.jp/index.html>.
- [17]Namsaraev, V. Hedging in Russian academic writing in sociological texts. In Markkenan and Schroeder eds. 64-79. 1997
- [18]Zuck J. and Zuck L. Hedges in news writing. in Cornu. A. Vanparijs, J. Delahaye, M. (eds) *Beads or Bracelet: How do we approach LSP?* Oxford University Press: 172-180. 1986.
- [19]Nozawa, Yukako. *The Use of Hedges and in*

- Polite Disagreement by Japanese advanced learners of English. 早稲田大學 大學院教育學研究科紀要 別冊 22호.2: 175-188. 2015
- [20]Noam Chomsky. Derivation by Phase. Kale Hale: A life in language. ed. by M. Kentstowicz 1-50. Cambridge, MA: MIT Press. 2001.
- [21]Rizzi, Louis. The fine structure of left periphery. In Haegeman (ed). Elements of grammar: Handbook in generative syntax. Dordrecht: Foris. 1997.
- [22]Kim, Hye-Jeong. The Effect of Mobile Phone Use on University Students' English reading Achievement.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5. No. 4. pp.183-189. 2019.
- [23]Hong, Sungshim. To hedge or Not to hedge?: The usage of English hedges amongst Korean Learners of English in composi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19.